

DEEP WATERS WORSHIP SERMON

The Land Psalm 37

Psalm 37 shows how the righteous, who believe in Jesus and are saved, still complain or envy when they see the prosperity of evildoers. Yet, this psalm reveals what true prosperity is not the temporary success the world gives, but the genuine prosperity that comes from God. In fact, Psalm 37 is often called "the Land Psalm," because the theme of "land" appears no less than eight times throughout the passage.

Psalm 37 first tells us that "the land" can be possessed, and who it is that inherits it. It belongs to those who put their hope in the Lord, the meek, the blameless, and the righteous blessed by God. These are the ones who will inherit the land. In other words, this "land" is not something bought with money or inherited from parents, but a special inheritance that God Himself gives to His people. And those who inherit this land will enjoy abundant peace.

However, throughout biblical history, it is rare to find meek, blameless, and righteous people who actually possessed the land and lived in abundant peace. Rather, many of God's people lived in poverty and suffered hardship, didn't they?

Therefore, the "land" spoken of here is not the physical land we know. It is an inheritance entirely different from anything in this world, something only those justified by faith can possess. But if one does not understand what this "land" is, even a believer may fail to possess it and will not enjoy its blessings.

In Psalm 37, the "land" is where the righteous dwell (v.3), a place that brings abundant peace to those who inherit it (v.11), and a place where they can dwell forever (v.29). This is not simply a location, but it points to God Himself, the personal and living Being.

Yes that is the truth. The "land" here refers to God Himself. God becomes our "land," and He allows the believer to possess Him. The God who is in heaven came down to earth to become the living "land," and those who believe in Him have come to possess Him. We are born and live on this physical earth, thinking that we are the ones doing everything. But those who possess God as their "land" realize that ultimately everything is the work of God.

Psalm 37 teaches us what true prosperity is. It is entirely different from the prosperity of the wicked or unjust. The prosperity of the righteous is to possess God the "land" to live in Him, to trust in Him, to enjoy His grace and protection, and to dwell in that "land" forever.

And in order for us to live in that "land," the Lord was crucified and died for us.

By this amazing grace that we have freely received, we have become those who dwell forever in that "land." And we will live with everlasting gratitude and joy to the God who has allowed us to inherit it.

깊은 물소리 예배 말씀 요약

땅 시편 37편

- 허령

시편 37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의인들이 여전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형통을 보며 불평하거나 시기하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형통이 무엇인지를 알려 줍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땅 장'이라 불릴 만큼, 무려 여덟 번이나 '땅'이라는 주제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시편 37편은 먼저 '땅'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며, 누가 그 '땅'을 소유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 온유한 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온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의인들입니다. 이들이 '땅'을 유업으로 소유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즉, 이 '땅'은 돈으로 사거나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특별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소유한 자는 풍성한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온유한 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의인들이 '땅'을 차지하여 풍성한 화평을 누리며 살았던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겪으며 가난하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아는 물질적인 땅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세상의 유업과는 전혀 다른 '땅'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며, 그 '땅'이 주는 유익 또한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나타나는 '땅'은 의인이 거할 수 있는 곳이며(3절), 그곳을 소유하면 풍성한 화평을 누리게 하며(11절),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곳입니다(29절). 이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인격적 존재이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땅'이 되시며, 믿는 자가 그분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 계신 '땅'이 되셨고, 믿는 자는 곧 그분 자신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라는 땅에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살아가며,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땅'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37편은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 알려 줍니다. 그것은 악인과 불의한 자가 누리는 형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의인의 형통은 바로 '땅'이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 안에 살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누리며, 영원히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땅'에서 살게 하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거쳐 받은 우리는 영원히 그 '땅'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Join Us for Worship

DEEP WATERS WORSHIP

Last Monday of every month at 7:30 PM

@TM Office

(PH-L, 7368 Yonge St, Thornhill, ON L4J 8H9)

INTERCESSARY PRAYER

Every Monday on zoom at 7:30 PM

SEND YOUR PRAYER REQUESTS

tentmakersministrywam@gmail.com

예배에 초대합니다

깊은 물소리 예배

매달 마지막주 월요일 7:30 PM 장막장이 사무실
(PH-L, 7368 Yonge St, Thornhill, ON L4J 8H9)

증보기도

매주 월요일 7:30 PM ZOOM

기도제목을 보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entmakersministrywam@gmail.com

